

# 연필로 푹푹 눌러쓴 책 만나요

## 학생 저자 책 출판 축제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내일까지 ACC 어린이극장 일원 '바람향기' 등 도서 50종 전시

광주지역 25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저술한 도서와 그동안의 책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는 '2022 학생 저자 책 출판 축제-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아홉 번째'가 지난달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시작됐다.

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 지역 25개 초·중·고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가 참여한다. 학생들이 직접 저술한 도서 50종을 전시하고, 지난 9년 동안의 성과물도 함께 소개한다.

행사장에서는 학생 저자들이 연필로 푹푹 눌러쓰고 다채롭게 그려낸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방법과 현실 세계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하는 마법사 남매의 이야기 등 여덟 편의 동화가 담긴 '꼬꼬마 다이어리' ▲동시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진심을 풀어낸 '바람향기' 친구들의 동시집 '나의 하늘을 보면' ▲우정, 꿈, 인권 등 학



학생 저자 책 출판 축제가 지난달 30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개막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생 저자들의 진심이 담겨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 '호락호락' ▲나무가 저마다의 색으로 물드는 것처럼 저마다 다른 색으로 꿈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나무 물들다 바다 물 들다' 등이 있다.

2일은 학생 책 출판에 참여한 25개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발표 행사가 열린다.

그동안의 책쓰기 과정을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보고, 이정선 교육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김선옥 사장 등의 축하 및 격려 메시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송의중 밴드 '울림'의 공연, 그림책과 시 낭송 등 책 축제를 축하하는 여러 공연들

을 학생들 스스로 준비해 함께 즐기는 뜻깊은 시간도 준비됐다.

올해 학생 저자로 참여해 소설 '변경의 용기'를 출간한 장덕고 김재홍 학생은 "지금도 내가 책을 출판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소재 선정이나 표지 만들기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분명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책을 출판했다는 뿌듯함으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고 감격스러움을 표현했다.

울곡초 이영은 교사는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은 오롯이 나를 써 내려가는 일하기에 오랫동안 내면 깊이 숨어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찾느라 학생들은 많이 고심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 힘든 여정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함께 와 준 우리 아이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 저자들이 쓴 한 권 한 권마다 학생들의 정성스러움, 유연한 발상, 풍부한 상상력, 창조적인 표현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책 출판 축제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학생 저자들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꽃의 향기를 가슴에 담아 늘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조선대 김보현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전시

양홍길·천영록 작품 50여점 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홀드 미술관 '제3회 올해의 작가상 양홍길&천영록' 전시가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열린다.

2018년 제정돼 올해 세 번째 맞이하는 올해의 작가상은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 출신 중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작가를 발굴·선정해 상금 수여 및 전시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헌사업이다.

이번 올해의 작가상은 예년과 다르게 공모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2명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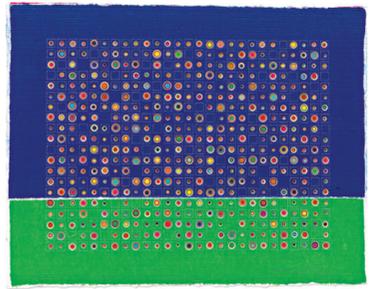
이번 작가상에 선정된 양홍길, 천영록 작가는 각 회화, 공예 장르에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인정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한지를 활용해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시리즈 연작하는 천영록 작가는 어느 겨울 내리는 눈을 보며 영감을 얻어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크고 작은 점을 찍어 표현한다. 그 점들은 꿈과 희망으로 다채로운 색과 연결되며, 그 색들은 행복함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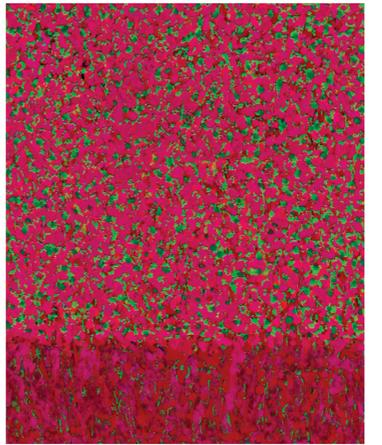
양홍길 작가의 미적 태도는 고요한 마음가짐을 중요시하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대 일상을 새하얀 화선지 위에 겹겹이 쌓아 올려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현대인의 만사(萬事)와 만리(萬理)를 깨닫고 조화로운 미적 세계를 펼쳐보이고자 하는 독창적인 한국 현대채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조선대 분관에 위치한 미술관 제1,2,3전시실에서 50여점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코



천영록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양홍길 '환희'

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현 세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개최와 더불어 전시 영상을 제작, 미술관 홈페이지, 유튜브 및 SNS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 휴관이다. /최진화 기자

## '호남 유학 거장' 노사 기정진 재조명

내일 노사학 계승 세미나

19세기 호남 유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사 기정진의 학문이 3대 제자에게 미친 사상을 살피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살피는 세미나가 열린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2일 오전 9시30분 광주항구 내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노문삼자의 노사학 계승과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노사 기정진은 조선을 대표하는 마지막 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벼슬에 오르길 거부하고 학문에만 몰두해 조선 유학의 중요한 주제인 주리론을 심화시켰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어려울 때 일본과 서양의 교역을 반대하는 위정적사 사상을 가장 먼저 주장한 의로운 실천가로 평가



김봉곤



전병철



조우진

진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의 '정의림의 역할과 위상' 이어진다. 토론에는 이형성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 함영대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 정영수 조선대 학술연구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중재 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시대정신을 학문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했던 노사학과 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호남 유학의 문화적 유산과 정신세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선각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사는 삶의 자세를 깨우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받는다. 세미나는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봉곤 노사학 연구원장의 '대국 김석규의 상인지향론과 노사학 정립', 전병철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의 '관선계강약을 통해 본 노백헌 정재규의 강학 운영 방침', 조우

## 비보잉과 국악의 만남 '메리 고 라운드'

3~4일 ACC 예술극장 극장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다양한 장르의 무용가들이 모인 크리에이티브 무버(MOVER)의 2022년 신작 '메리 고 라운드(MERRY-GO-ROUND)'를 3~4일 이틀동안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작작 유통 협력사업 선정작이다.

'메리고라운드'는 회전목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힙합 장르에서는 두 개의 턴테이블을 활용해 노래의 간주(브레이크)를 반복하는 디제이 기술을 말한다.

현대무용가인 김설진 예술감독이 제작을 맡

은 이번 공연은 비보잉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연 콘텐츠다.

공연에서는 '기쁨', '슬픔', '성취', '허무'로 반복하는 이질적 감정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공연에 앞서 일반인도 쉽게 브레이크를 접해볼 수 있는 '댄스 워크숍'이 2일 열린다.

'메리고라운드'는 3일과 4일 오후 5시 총 2회 공연하며,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수능 수험생 등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www.shsa.kr

#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형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신철우**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영업직원 수시모집

**www.shsa.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